

## “현중 도둑 주총 원천 무효”

### 시간 장소 기습 발표, 감감 주총 ... 노조, “물적 분할 무효 투쟁 벌인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자들의 기세에 눌린 정몽준 일가 재벌이 결국 도둑 주주총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벌인 주주총회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주주총회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현중 사측은 5월 31일 07시부터 용역 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한마음회관 주변 농성장을 압박하고, 조합원들을 위협했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 깡패와 조합원들의 대치는 주주총회 예정 시각인 10시를 넘어서 이어졌다.

사측은 10시 30분께 한마음회관 입구에서 11시 10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 변경을 알리는 인쇄물을 뿌리고, 울산대 병원 담벼락에 안내문을 걸었다.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은 변경 공고를 보고 곧바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했다. 금속노조 지부·지회 조합원들은 농성장을 지켰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법률원은 현중 사측이 벌인 주주총회에 의



견서를 발표했다. 법률원은 “현대중공업이 강행하는 주주총회와 물적 분할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법률원은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 장소 변경에 관해 “소액주주의 주총 참석 권리를 박탈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존 주주총회 장소인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강당까지 이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장소 변경을 발표해 주주들의 참석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법률원은 “현대중공업이 일부 주주만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 회사 의도대로 안건을 통과시킨 행태를 묵과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회사의 분할은 고용과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3%

의 회사 지분을 가진 노동자의 의견 표명은커녕 참가 자체를 막은 행위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자본의 악랄함에 대해 누차 얘기했다. 산재로 수

많은 노동자가 죽고 노조결성을 위해 일한 활동가 가운데 정몽준 일가의 재벌 폭력에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며 “오늘 우리는 법적 분할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다. 오늘의 투쟁 경험이 금속노동자들에게 큰 교육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현대중공업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하는 노조의 견해는 변함없다”라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 전망을 동지들과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오늘 현대중공업이 벌인 도둑 주주총회에 대한 법률상 조치들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을 벌이며 무효화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019년 단체교섭 출발

30일 상견례, “8월에 끝내자는 요구다” ... “정년연장 돌파구 마련, 불법과건 해결 단체교섭 바란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5월 30일 오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019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상견례 인사말에서 “2018년도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하부영 지부장과 함께 결단할 요구안은



결단하겠다는 견해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부는 두 번에 걸쳐 추석 전 타결을 내비쳤다. 실질로는 8월에 끝내자는 요구이다” 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집중해서 교섭에 임하겠다. 사측도 교섭에 집중해달라” 라고 제안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대해 “전체 산업 측면에서 대리전 양상을 보일 수 있어 회사가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고 조합원의 바람이다” 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정부가 이미 65세에 정년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고, 완벽은 아니지만, 의견접근을 해 볼 수 있다. 조기에 교섭을 매듭 할 수 있도록 사측이 교섭에 집중하는 시기를 잘 판단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노사가 지난해 경험과 신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올해는 단체협약 갱신이 있어 타결이 쉽지 않으리라는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다” 라며 운을 뚫었다. 하부영 지부장은

“노사는 논쟁의 소모를 지양하고 속도감 있게 압축해 진행하자. 실무 교섭에 힘을 실어 본 교섭에 집중하자” 라고 제안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정년연장 요구안에 대해 “정부의 방침이 바뀌고 있고, 현장 조합원의 기대감이 높다. 현대차 노사가 고령화 시대와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사회의 책임이 있고, 또 선도기업의 역할과 의무이기도 하다” 라고 언급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확일 적용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답을 찾아보자. 정년퇴직자가 개인별 처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년연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단체교섭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하부영 지부장은 “노조는 고용안정을 활동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지만, 자동차산업 변화도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전제한 뒤, “사측이 법을 위반하고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경영은 더는 안 된다. 기필코 불법과건을 해결하는 방향을 찾는 단체교섭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강조

했다.

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현대차 교섭은 노사와 고객과 국민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교섭에 임할 때마다 어떻게 풀어가고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라고 인사했다. 하 대표는 “세계 자동차산업 자체가 우버 등 구매해서 활용하는 자동차 사용업체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라고 자동차 시장 상황을 언급했다.

하언태 대표이사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섭의 핵심은 임금과 성과급 분배에서 건강, 복지, 안전 등으로 변화해 왔다. 이제 자동차산업의 변화, 회사의 경영환경과 실적을 고려할 때 고용을 우선하는 교섭이 돼야 한다” 라며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내공장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지혜를 모으는 교섭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차 교섭을 ‘경영 설명회’ 로 열기로 하고, 주 2회 화, 수요일 연속교섭 원칙에 합의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5월 8일, 9일 울산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13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2019년 단체교섭 핵심요구는 ▲통상임금 해결 ▲정년연장 ▲불법과건과 불법 촉탁직 해결 ▲고용안정 등이다.